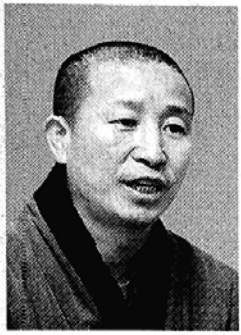


“새집행부서 종단화합 구현”

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41일 도법스님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도법스님은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라는 종도들의 염원을 어김없이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6일 실상사로 내려갔다.

-41일간의 권한대행을 마무리하는 심정은.

▲지난 41일간의 돌아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

다. 조계종의 승가대중이 불교적 세계관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대로 걷는다면 이번과 같은 비불교적이고 반사회적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태 수습의 일선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다.

▲승가가 견지해야 할 불교적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런 과정에

서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것이 안타까웠다.

-사부대중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간의 삶은 절망 속에 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안목과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견져 올릴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있다. 물론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임연태 기자
(ylim@buddhapia.com)

“긍정적 자세로 생활하세요”

지원스님 은평구청 공무원 초청 격려



서울 은평구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은 7일 낮 12시 은평구청 공무원 초청 오찬회를 열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평구청 이매영 구청장을 비롯 1백여 구청공무원과 지역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10명의 모범 공무원에게 지원스님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다. 또 참석 공무원 전원에게 넥타이와 스카프 등 격려

품과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고, 점심을 대접했다.

스님은 “IMF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애써 준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담았다”면서 “새해에도 구민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불교사회봉사회 수술키 8백만원 기탁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는 5일 원효정사(법주 종인스님)에서 백혈병, 심장병, 신장병, 소아암 어린이 환자 8명에게 8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천축사 주지 정혜스님은 “몸과 마음의 병을 조복받는 것은 결국 자신의 원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라며 어린이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금강경 독송회 정초 기도법회

청우불교인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용) 정초기도법회가 1일 충북 증인 미륵사지 세계사에서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미륵존여래불’ 정진에 이어 열린 법회에서 김재용회장은 “올 한해에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국가발전을 위한 일을 세우며 후복한 복력으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짓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탑골공원 원각사 연등놀이 송년모임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스님)는 구암 31일 탑골공원에서 ‘제야의 등’ 정등식 및 연등놀이 송년모임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 도선사 주지 동광, 마하연사 주지 종수, 관음암 주지 법성스님과 이진호 대한불교방송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여해 기묘년 새해의 경제회복과 화합사회 실현을 빌었다.



심우회 육군교도소재소자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3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해 위문법회를 열고 재소자장병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명원 회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자”고 재소자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앞서 심우회는 구암 13일 강원도 2사단과 21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 난로와 물품을 보시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교차로

김상사 선수권회서 법문

법정 김상사 회주는 17일 오후 2시 30분 김상사 설법전에서 겨울 선수권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한다. (02)3572-5945

노숙자숙소 희망의 집 개원

현성 혜명암로 원장(청교련 회장)은 12일 오후 2시 양로원 내에 노숙자 숙소인 ‘희망의 집’을 개원했다.

보경사 국난극복회 참석

성타 불국사 주지는 9일 포항 보경사가 주최한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대법회에 참석, 법문했다.

경찰청 송년법회서 설법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금강사 주지)은 구암 24일 경찰청

남관 법당에서 열린 송년법회에서 “비록 티끌 세간에 있더라도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이라고 법문했다.

새해맞이 탐들이 행사

원혜 봉은사 주지는 구암 31일 새해맞이 타종식 및 탐들이 발원 행사를 5백명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봉은사 종각앞에서 봉행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제

성법 호국사 주지는 구암 30일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성법스님은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장애인 겨울 캠프 실시

보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원장은 구암 21, 22일 강원도 횡성 현대 여성리조트에서 장

에인 겨울 캠프를 실시했다.

영신불교대 수계법회

법장 무진법장사 주지는 14일 영신불교대교리반 18기 수계법회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대구 보현사 주지에

지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관오사 주지)은 최근 대구 보현사 주지로 부임했다.

신라포교원 개원 기념법회

매물 신라포교원 원장은 9일 신라포교원 기념법회 및 삼승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해병·육군부대 위문금 전달

이흥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구암 26일 경북 동해안 지역 해병부대와 육군부대

를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허버드대서 1년간 강의

고은 시인은 미국 허버드대에서 1년간 연구교수로 활동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또 미국 버틀리대에서 1학기동안 시론 강의 초빙교수로도 출강하게 된다.

육군 9사단 장병 위문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9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9사단을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문화부장관 표창 받아

송춘희 법사는 구암 18일 연예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범무법인 ‘일월’ 개업

신영 변호사(경주국제화술포럼 이사장)는 9일 공증인가 범무법인 일월(日月)을 개업했다. (0562)251-0101

“더 좋은 불교작품 쓰래요”

동아·조선 신춘문예대상 이우상·나유진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99 신춘문예에서 종편과 단편소설 부문에 나란히 당선된 이우상씨(45)와 나유진씨(36)는 불자이면서 불교사상을 작품화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씨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에서 종편소설 <울음산>을 통해 자신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드러냄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 시대에 불교가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씨는 더욱 좋은 불교

은 노파가 스스로 다비의 길로 치닫는 결말은 생명의 외경에 대한 신성

한 의식(儀式)으로 표현해 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나씨는 현재 미국 LA에 있는 한 인 방송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한영무 기자

필요해 헌혈증서가 필요하

다. 생명나눔실천회가 6일 1차로 30매의 헌혈증서를 전달했으나 불자들의 도움 이 절실하다. (016)525-341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백혈병 투병...헌혈증서 절실해요”

구룡사 학생회 이상원군

“헌혈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룡사학생회 간사로 활동해 온 이상원(21·경원전문대 2년)씨가 한달전 백혈병(재생성 혈소판 불능)에 걸려 여의도 성모병원 무궁실에서 투병중이다. 가족들과는 조직형이 불일치해 골수은행에 골수기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매번 치료시마다 열소판 헌혈이



필요해 헌혈증서가 필요하

募 綠 文



서기 527년 신라왕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며,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밀방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요.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청정수를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수취국 700047-0333069 박성일(흥륜사 주지)
농 립 721015-52-239100 박성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혜해 합장

사부대중 여러분께 드리는 글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29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먼저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누를 끼치고, 전통종교인 우리 불교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게 된 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는 사태가 이렇게 발전된 데 대하여 어떤 문책도 기꺼이 받을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불교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젊은 스님들과 저를 믿고 따라 주셨던 조계사 신도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모든 것은 저의 덕과 지혜가 부족한 탓으로 돌려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사부대중의 뜻과 의지를 모아 선출된 신임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화합 단결하여 불교발전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일·체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탁마하는 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2년 12월 31일

현 근 합장